

국내외 의학교육 학회지를 통해 본 의학교육 연구의 동향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과

김 선

Current Trends in Medical Education by Analysis of Journals of Medical Education

Sun Kim, PhD

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Catholic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서 론

우리나라에서 최근 의학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각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학교육 관련 연구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모든 연구 분야가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듯이 의학교육 분야의 연구 또한 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즉, 연구문제를 만들어 내고, 가설을 설정하고, 설정된 가설을 검증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나의 연구결과는 다른 새로운 연구의 선행연구가 되는 등 연구들이 누적되어 관련분야의 발전을 도모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의학교육에서의 연구도 과학적인 방법론에 근거하여 진행되어야만 하지만, 순수한 의미에서 의학적 연구방법의 접근과는 차이점이 있다. 의학교육 분야의 연구는 과학적 실험의 의미보다는 실제 의학교육의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사실과 현상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의학교육 분야의 연구는 한편으로는 객관적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접근 방법이 적용되는 동시에 사실적인 것을 기록, 관찰하여

질적인 측면에서 현상을 파악하는 방법도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의학교육 분야에서의 연구 결과는 실제 의학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지속적으로 공유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의학교육의 발전에 궁극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순수 의학적 연구방법의 접근과는 다른 의학교육에서의 연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그리고 국내외 의학교육 분야의 연구는 어떠한 주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본 고에서는 간단하게 연구와 과학의 의미, 연구절차, 방법, 유형 등을 살펴 본 후 구체적으로 이 분야에서의 연구 동향을 한국,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의학교육의 최근 변화 동향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본 론

의학교육 연구의 동향을 비교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발간되는 ‘한국의학교육(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을 미국을 대표하는 의학교육학회지로서는 ‘Academic Medicine’, 유럽을 대표하는

교신저자: 김 선,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과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505번지

Tel: 02)590-2981, Fax: 02)591-7185, E-mail: skim@catholic.ac.kr

* 이 논문은 2004년도 제 15차 의학교육합동학술대회 발표원고에서 발췌하였음.

Table I. 한국의학교육, Academic Medicine, Medical Teacher의 논문 편수 (2000~2003)

학회지	연도				합계	편수
	2000	2001	2002	2003		
한국의학교육	27	30	26	20	103	9
Academic Medicine	64	67	87	75	293	48
Medical Teacher	66	82	88	89	325	24

Table II. 대분류에 따른 논문 편수 - 한국의학교육

대분류	연도				합계 (%)
	2000	2001	2002	2003	
교육공학	5	0	1	0	6 (5.8%)
교육과정	10	9	7	1	27 (26.2%)
교육방법	7	5	4	7	23 (22.3%)
교육평가	5	16	14	12	47 (45.6%)
합계	27	30	26	20	103

학회지로서 영국에서 발간되는 'Medical Teacher'를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최근의 연구 동향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각 학회지에 게재된 2000년도부터 2004년도 현재까지 모든 논문의 원저들을 분류하였다. 분석 내용으로는 다음의 항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각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원저를 중심으로 2000년도부터 2003년도 현재까지의 최근 논문 게재 편수를 살펴보았다.

2) 각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원저를 중심으로 연도별 연구의 주제들을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3) 각 학회지에 게재된 원저들을 소분류로 보다 세분화시켜 최근연구의 구체적인 주제들을 살펴보았다.

가. 각 학회지의 최근 논문 게재 편수 (2000년~2003년)

한국의학교육, Academic Medicine 그리고 Medical Teacher에 게재된 연구 논문들의 편수는 Table I 과 같다.

한국의학교육은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1년에 2권이 발간되었다가 (부록 제외) 2003년도부터 3

권이 발간되었다. 따라서 연평균 25.8편의 원저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으며 1권당 평균 11.4편의 원저가 게재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cademic Medicine의 경우 월간 간행물로서 매년 12편의 정기호가 발간되고 있다. 따라서 연평균 74.3편의 많은 원저가 발표되고 있으며, 1권당 평균 6.1편의 원저가 게재되고 있다. Medical Teacher의 경우에는 격월로 발행되는 간행물로 연간 6편의 정기호가 발간되고 있으며, 연평균 59.8편의 원저가 발표되고 있다. 1권당 논문 게재 수는 평균 13.5편이다. 따라서 연평균 논문편수는 Academic Medicine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Medical Teacher 그리고 한국의학교육이었다. 학회지 1권당 게재되는 원저의 편수는 한국의학교육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Medical Teacher 그리고 마지막으로 Academic Medicine이었다.

나. 연도별 연구의 주제 동향

1) 한국의학교육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게재된 103편의 원저 논문을 교육공학,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평가로 크게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교육평가를 주제로 한 논문들이 47편 (45.6%)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Table III. 대분류에 따른 논문편수 - Academic Medicine

대분류	연도				합계 (%)
	2000	2001	2002	2003	
교육공학	3	2	3	3	11 (3.8%)
교육과정	22	8	34	29	93 (31.9%)
교육방법	6	14	6	12	38 (13.1%)
교육평가	22	24	27	19	92 (31.6%)
교육행정	7	15	9	8	39 (13.4%)
기타	4	4	6	4	18 (6.2%)
합계	64	67	85	75	291

Table IV. 대분류에 따른 논문 편수 - Medical Teacher

대분류	연도				합계 (%)
	2000	2001	2002	2003	
교육공학	1	2	10	10	23 (7.1%)
교육과정	27	27	25	25	104 (32.0%)
교육방법	18	20	14	19	71 (21.8%)
교육평가	12	25	22	31	90 (27.7%)
교육행정	5	4	9	3	21 (6.5%)
기타	3	4	8	1	16 (4.9%)
합계	66	82	88	89	325

교육과정, 교육방법 그리고 교육공학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II).

교육공학의 경우 2001년도 이후에는 발표되는 논문이 거의 없었다. 반면, 교육평가의 경우 2001년도부터 꾸준히 10편 이상의 논문이 게재되고 있어 다른 주제들에 비해 많이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며, 의학교육 연구자들이 평가에 대한 주제에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Academic Medicine

Academic Medicine의 경우 교육행정과 관련된 주제가 첨가되었고 5가지 주요 주제에 속하지 않는 기타 주제들이 많아 이들은 기타로 분류하였다. 총 291편의 논문 중 Academic Medicine의 경우는 교육과정과 관련된 논문들이 93편 (31.9%)으로 가장 많았다. 근소한 차이로 평가에 대한 연구가 92편

(31.6%)으로 많았고 그 다음으로 많이 다루어진 주제로는 교육행정 (13.4%), 교육방법 (13.1%) 그리고 교육공학 (3.4%)이었다. 전반적으로 교육과정과 교육평가에 대한 연구주제가 인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III).

3) Medical Teacher

Medical Teacher는 총 325편의 논문 중 의학교육과정과 관련된 논문들이 104편 (32.0%)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의학교육평가가 90편 (27.7%), 교육방법이 71편 (21.8%), 교육공학이 23편 (7.1%) 그리고 교육행정인 21편 (6.5%)으로 나타났다 (Table IV).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뚜렷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연구주제들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공학 관련 논문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이며 교육평가와 교육과정은 다른 학회지와 마찬가지로

Table V. 대분류에 따른 세 학회지의 논문 게재 편수 비교 (2000~2003)

대분류	N (%)		
	한국의학교육	Academic Medicine	Medical Teacher
교육공학	6 (5.8%)	11 (3.8%)	23 (7.1%)
교육과정	27 (26.2%)	93 (31.9%)	104 (32.0%)
교육방법	23 (22.3%)	38 (13.1%)	71 (21.8%)
교육평가	47 (45.6%)	92 (31.6%)	90 (27.7%)
교육행정	0	39 (13.4%)	21 (6.5%)
기타	0	18 (6.2%)	16 (4.9%)
합계	103 (100%)	291 (100%)	325 (100%)

Table VI. 대분류와 연대에 따른 세 학회지의 논문게제율

(%)

대분류	한국의학교육				Academic Medicine				Medical Teacher				합계
	2000	2001	2002	2003	2000	2001	2002	2003	2000	2001	2002	2003	
교육공학	18.5	0.0	3.8	0.0	4.7	3.0	3.5	4.0	1.5	2.4	11.4	11.2	64
교육방법	25.9	16.7	15.4	35.0	9.4	20.9	7.1	16.0	27.3	24.4	15.9	21.3	235.3
교육평가	18.5	83.3	53.8	60.0	34.4	35.8	31.8	25.3	18.2	30.5	25.0	34.8	421.4
교육행정	0.0	0.0	0.0	0.0	10.9	22.4	10.6	10.7	7.6	4.9	10.2	3.4	80.7
기 타	0.0	0.0	0.0	0.0	6.3	6.0	7.1	6.3	4.5	4.9	9.1	1.1	45.3
합 계	62.9	70	73	95	65.7	88.1	60.1	62.3	59.1	67.1	71.6	71.8	846.7

의학교육 연구에서 주요 관심영역을 알 수 있다.

4) 한국의학교육, Academic Medicine, Medical Teacher의 비교

Table VI은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한국의학교육, Academic Medicine 그리고 Medical Teacher 학회지에 실린 원저 논문을 주제별로 구분하여 그 비율을 정리한 것이다. 한국의학교육과 Academic Medicine의 경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논문의 주제는 평가방법과 교육과정이다. Medical Teacher의 경우에도 평가영역이 27.7%를 차지하여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이 보다 교육과정 영역이 32.0%로 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한국의학교육에는 없으나 Academic Medicine과 Medical Teacher

에는 행정분야에 관한 연구논문들이 각각 13.4%와 6.5%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V).

3가지의 학회지를 년도 별로 비교해보면 Table VI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한국의학교육의 경우 교육공학이나 과정, 방법 분야들에 대한 논문 비율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의학교육평가 부분이 점점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cademic Medicine의 경우 교육과정 부분이 증가하고 있으며 Medical Teacher의 경우 교육과정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면서 평가와 공학에 대한 논문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세 학회지의 분석 결과를 보았을 때 평가와 과정분야에 대한 연구들이 매우 강세를 보이고 있

Table VII. 소분류에 따른 논문편수 - 한국의학교육

소분류	대분류	논문편수	소분류	대분류	논문편수
임상실습	과정,방법,평가	13	인턴십	방법,평가	3
통계처리/방법	평가	8	OSCE	평가	3
PBL	방법	8	교육환경	평가	3
전공의 교육	과정,평가	7	교수(teaching)평가	평가	3
의학윤리	과정	5	교육과정 개선	과정	2
진로	평가	5	컴퓨터보조학습	공학	2
학업성취	평가	4	멀티미디어	공학,방법	2
인정평가	평가	4	본과교육	과정	2
E-learning	공학	3	통합교육	과정,방법	2
의예과 교육	과정	3	교수개발	평가	2
표준화 환자	방법	3	편입	평가	2
			평가방법	평가	2

Table VIII. 소분류에 따른 논문편수 - Academic Medicine

소분류	대분류	논문편수	소분류	대분류	논문편수
전공의 교육	공학,과정,방법,평가,행정	47	소수민족	과정,행정	4
임상실습	평가,과정,방법,행정	25	인문사회학	과정	4
본과 교육	과정,평가,방법,행정	12	진로	평가,방법,행정	3
일차의료	과정, 평가	10	자가평가	평가	3
PBL	방법,평가	9	의사소통	방법,평가	3
교수개발	과정,평가,행정	9	의료관리	과정	3
교수방법	평가,방법,행정	8	기관	행정	3
평가방법	평가	8	의학윤리	과정,방법	3
OSCE	평가	6	면허	평가,행정	2
표준화 환자	평가,방법	6	임상지도교수	행정	2
컴퓨터보조학습	공학	6	사이버교육	공학	2
전문성 교육	과정,방법,평가	6	학습자 태도	방법,과정	2
외대교육	과정,방법,평가	6	기관운영	행정	2
교육과정개선	행정,과정,평가	5	직업만족도	평가	2
입학/선발	행정,평가	5	학습자평가	평가	2
교수/학습평가	평가	5	정책	행정	2
지역중심의료	과정,방법,행정	4	연구방법	방법,평가	2
EBM	방법	4	리더십	행정	2
수행평가	평가	4			

음을 알 수 있다.

다. 학회지 별 연구 소주제

1) 한국의학교육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한국의학교육 학회

Table IX. 소분류에 따른 논문편수 - Medical Teacher

소분류	대분류	논문편수	소분류	대분류	논문편수
임상실습	과정,평가,방법	32	의학윤리	과정,평가	3
PBL	과정,방법,평가	17	장학	평가,행정	3
EBM	과정,방법,평가	15	웹기반 학습	공학	3
본과교육	과정,평가,행정	14	포트폴리오	평가	3
교수개발	과정,평가,행정	13	기준	과정	3
교수·학습방법	과정,방법,행정	12	통합교육	과정,평가	3
교육과정 개선	과정,평가	9	인문사회교육	과정	3
의사소통	과정,방법,평가	8	일차의료	과정	2
컴퓨터보조학습	공학	8	원격교육	공학,과정	2
OSCE	평가	8	기자재/실습실	공학	2
전공의 교육	과정,평가,공학	7	E-learning	공학	2
전문성 교육	과정,공학,방법,평가	7	학생선발	평가,행정	2
지역중심의료	과정,방법,평가	6	표준화 환자	방법	2
평생교육	과정,방법	6	형성평가	평가	2
외래교육	과정,평가	5	수행평가	평가	2
학습자 태도	과정,평가	5	환자-의사관계	과정	2
시뮬레이션	과정,방법	4	인터넷	방법	2
교육환경	과정,행정	4	동료평가	평가	2
			시간관리	방법,행정	2

지에 실린 논문들을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본 결과 매우 다양한 소분류 주제들이 발견되었다. 2편 이상 연구된 논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Table VII과 같이 정리될 수 있는데, 임상교육과 관련된 주제와 과정, 방법, 평가 분야에서 발견되었고 가장 많이 연구되는 주제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통계방법과 관련된 연구, 문제바탕학습(PBL), 전공의 교육과정과 평가에 관한 연구, 의학윤리 교육과정과 학생들 진로교육에 관한 연구 순으로 나타났다. 각 한 편씩 연구된 주제들로는 복합학위과정, 일차진료, 봉사활동, 사회의학, 전문대학원, 학업성취, 교수개발, 시험 문항평가 그리고 수행평가가 있었다(Table VII).

2) Academic Medicine

Academic Medicine에 실린 논문들 중 기타로 분류된 논문들을 제외한 논문들을 보다 세분화하여 2편 이상 연구된 논문들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IX과

같다. 가장 많은 연구의 주제로 선정된 것은 전공의 교육으로 게재된 논문 편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다음으로 임상실습, 본과 교육, 일차의료, 문제바탕학습(PBL), 교수개발, 교수방법, 평가방법 등의 순이었다. 아래 표에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1편씩 연구된 기타 연구 주제로는 교육비용, 면담기술, 대체 의학, 복수전공, 통합교육, 확장, 선택교육, 질관리, 정보교육, 자가학습, 의사-환자 관계, 인터넷공학, 의예과 교육, 외국인학생평가, 성차별, 외래교수 등이 있었다(Table VIII).

3) Medical Teacher

Medical Teacher에 실린 논문들 중 기타로 분류된 논문들을 제외한 논문들을 보다 세분화하여 2편 이상 연구된 논문들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X와 같다. Medical Teacher에도 매우 다양한 주제들이 발견되었는데, 가장 인기가 높은 연구주제는 임상교육

Tabel X. 한국의학교육, Academic Medicine, Medical Teacher의 상위 5위 연구주제

순위	한국의학교육	편수(%)	Academic Medicine	편수(%)	Medical Teacher	편수(%)
1	임상실습	13(12.6)	전공의 교육	47(16.2)	임상실습	32(9.8)
2	통계처리/방법	8(7.8)	임상실습	25(8.6)	PBL	17(5.2)
3	PBL	8(7.8)	본과 교육	12(4.1)	EBM	15(4.6)
4	전공의 교육	7(6.8)	일차의료	10(3.4)	본과교육	14(4.3)
5	의학윤리 진료	5(4.9)	PBL 교수개발	9(3.1)	교수개발	13(4.0)

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으로 PBL, EBM, 본과교육 과정, 교수개발, 교수·학습방법, 교육과정개선, 의사소통, 컴퓨터보조학습(CAI), OSCE, 전공의교육, 임상기술, 지역중심교육, 평생교육, 외래교육, 학생태도 등에 관한 연구들이 순차적으로 많이 연구되었다. 아래에 표기되지는 않았으나 의학교육공학 분야에서 기타로 연구된 주제들은 가상교육, 소프트웨어, 등이 있었고, 과정보분야에서는 ICU, concept mapping, multi-professional, 디지털교육과정, 미래교육, 사례중심교육, 성교육, 성인교육, 외국학생교육, 학생활동 등이 있었다. 방법 분야에서는 환자참여, 상담교수, 외국어교육, 자가학습방법 등의 주제들이 있었고 평가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학생평가제, 학생건강, 가정의학, 선택형 시험평가, 진단능력, 체점방법, 표준화사례평가, 학습자중심 평가 등의 주제들이 다루어졌다. 행정 분야에서는 교수책무, 교육의 질, 학장, 그리고 학생학대와 같은 주제들을 다룬 연구들이 있었다(Table IX).

한국의학교육, Academic Medicine 그리고 Medical Teacher에 게재된 논문들 중 상위 5위안에 들어가는 연구 주제들을 살펴보면, 임상실습에 대한 연구가 1위 또는 2위의 순위라는 것을 알 수 있다(Table X). 전공의 교육에 관한 내용도 Medical Teacher에서는 11위였으나 한국의학교육과 Academic Medicine에서는 각각 4위(6.8%)와 1위(16.2%)를 차지하고 있었다. 본과 교육에 관한 연구는 한국의학교육을 제외하고 Academic Medicine과 Medical Teacher에서 각각 3위(4.1%)와 4위(4.3%)를 차지하는 등 많은 연구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PBL의

경우 세 학회지에서 2, 3, 5위를 차지하여 모두 5위 안에 드는 인기 있는 연구 주제로 나타났다.

결론

지금까지 의학교육 연구방법으로 양적연구, 질적 연구를 언급하였고, 연구방법의 유형으로는 실험연구, 상관연구, 관찰연구를 소개하였다. 그리고 최근 4년간의 의학교육 연구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의학교육, Academic Medicine, Medical Teacher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학교육에서는 교육평가에 대한 연구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었다. 다른 두 학회지의 경우 특별히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대분류 주제들은 없었다. 또한 한국의학교육 학회지에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교육행정 분야의 연구주제들이 꾸준히 실리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평가, 방법, 과정 이외에 이를 전체적으로 지원해주는 행정분야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김영명(2000)이 1997년에서 1999년까지 한국의학교육과 Academic Medicine의 학회지에 실린 논문들을 분석한 연구에서 지적한 부분이었는데 아직까지 교육행정부의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은 다시 한번 지적되어야 할 부분이다. 1997년에서 1999년까지 Academic Medicine의 경우 임상실습에 대한 연구가 1.7%였던 반면 2000년에서 2003년까지의 연구에서는 전체 연구의 8.6%를 차지하여 보다 많은 연구가 이루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6.2%(1997~1999)에서 12.6%(2000~2003)로 두 배 이상 증가하여 현재는 가장 많은 연

국내외 의학교육 학회지를 통해 본 의학교육 연구의 동향

구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Academic Medicine과 Medical Teacher의 논문들 중상위 5위에 기록된 주제들을 보면 우리나라 학회지의 상위 순위에는 없는 주제들이 있다. 본과 교육에 대한 연구와 교수개발 그리고 EBM이다. 이미 새로운 의과대학 교육과정이 많이 개발되고 적용된 미국과 유럽의 의과대학에서 아직도 본과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은 새로운 교육과정의 개발과 적용을 두려워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학업 수월성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수자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교수개발에 대한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보다 중요한 연구주제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EBM의 경우 근거중심의학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연구를 의학교육학자들이 많이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Academic Medicine과 Medical Teacher에서 적은 편수로 기록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잘 수행되지 못하는 흥미로운 연구주제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연구주제를 차후 연구로 또는 보다 심층화된 연구로 다루는 것도 좋으나 새로운 영역으로 관심을 넓혀 가는 창의적인 시도 또한 연구자가 지녀야 할 자세일 것이다. 예를 들어, concept mapping, 교육비용, 대체의학, 통합교육, 성차별, 의학전문성, 의사-환자관계에 대한 주제들에 대해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떠한 지 연구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것이다. 새로운 연구주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기존의 연구주제들을 다중분석(meta analysis)하는 이차연구가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중분석은 의학교육에서 그 사례가 매우 적으며 수행하기 어렵다. 그러나 연구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재검토하고 비평할 수 있는 종설과 같은 이차적 연구들이 필요하다. 특히 질적 연구와 같이 다중분석이 어려운 연구들의 경우 체계적인 이차 연구들 통해서 다중분석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종설의 경우 우선 현재 관심도가 높은 연구주제를 선정한다. 그 다음 관련 연구자료들

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의학교육자에게 관심을 줄 수 있는 주요 논쟁거리나 문제들을 추출한다. 선별된 3~5가지의 주요 문제와 관련된 연구자료들을 모두 찾아 분류하고 연구문제별로 분류된 연구자료들은 보다 자세히 분석되어 연구문제에 적절한 해답을 찾는다(Amin et al, 2000). 체계적인 이차 연구는 기존 연구결과들을 통합하고 정리하며 새로운 개념과 이론 그리고 새로운 연구 주제들을 제안해 줄 수 있다. 이차연구를 수행하는 것 이외에 최신의 연구보고서나 논문에 항상 관심을 두고 동료교수들과 선·후배 교수들과 새로운 정보공유와 상호작용을 활발히 하는 것도 새로운 연구주제를 찾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상진 (1997).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 의학과. *의학연구방법론: 과학연구방법론-자료집*. 의학문화사.
- 김병서 (1997). *교육연구방법*. 학지사.
- 김병하 역 (1992). *질적연구의 이해와 실천*. 특수교육.
- 김동익 (1996).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 의학과. *의학연구방법론-자료집*. 의학문화사.
- 김영명 (2000). 학술지를 통해 본 우리나라 의학교육의 현황. *한국의학교육*, 12(부록1), 1-6.
- 성태제 (1998). *교육연구방법의 이해*. 학지사. p.19-42.
- 이종성 (2003). *교육연구의 설계와 자료분석*. 교학연구사.
- Amin Z & Eng HK (2003). *Basics in Medical Education*. World Scientific Publishing, 357-380.
- Amin Z, Guajardo J, Wisniewski M, Bordage G, Tekian A, & Niederman LG (2000). Morning reprot: Focus and methods over the past three decades. *Academic Medicine*, 75(10 supplement), S1-5.
- Busari OJ, Prince K, Scherpbier A, Vleuten C, Essed G (2002). How residents perceive their teaching role in the clinical setting: a qualitative study. *Medical Teacher*, 42(1), 57-61.

- Gray WR, Carter HY, Edwards M, Falshaw M, Gantley MM, Hagdrup AN & Sheldon GM (2000). The University Linked Practices computer network project in East London and Essex: a qualitative evaluation. *Medical Teacher*, 22(3), 265-270.
- Irby DM (1994). What clinical teachers in medical need to know? *Academic Medicine*, 69(5), 333-342.
- Jozefowicz RF et al(2002). The quality of in-house examinations. *Academic Medicine*, 77(2), 156-61.
- Norman G & Schmidt HG(2000). Effectiveness of problem-based learning curricula: Theory, practice and paper darts. *Medical Education*, 34, 721-8.
- Norman G(2002). Research in medical education: Three decades of progress. *British Medical Journal*, 324, 1560-1562.
- Pitkala HK & Mantyranta T(2003). Professional socialization revised: medical students' own conceptions related to adoption of the future physician's role: A qualitative study. *Medical Teacher*, 25(5), 155-160.
- Rees EC, Sheard EC & McPherson CA(2002). A qualitative study to explore undergraduate medical students' attitudes towards communication skills learning. *Medical Teacher*, 24(3), 289-293.
- Solomon P & Crowe P(2001). Perceptions of student peer tutors in a problem-based learning programme. *Medical Teacher*, 23(2), 181-186.